



2026. 9. 11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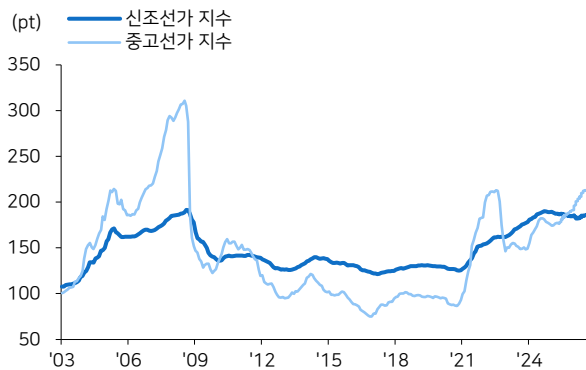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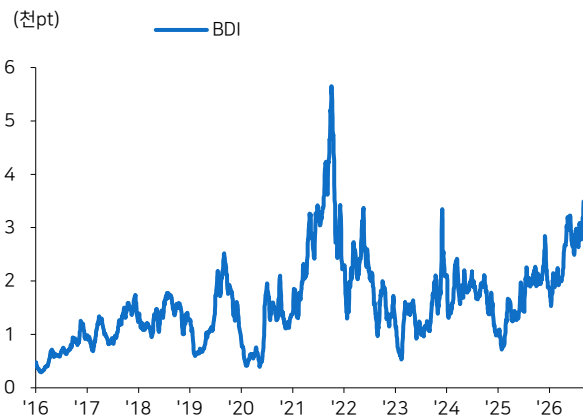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32.0달러 (+6.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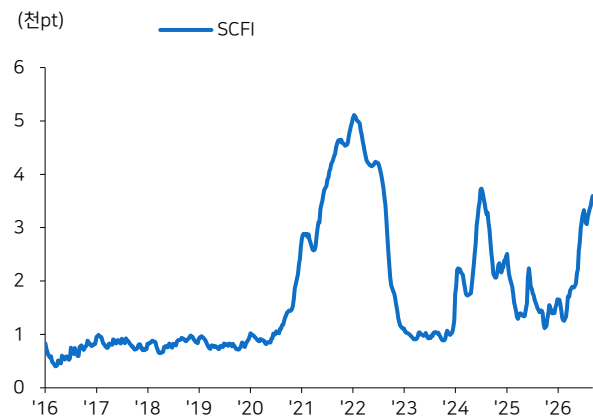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620.0p (+3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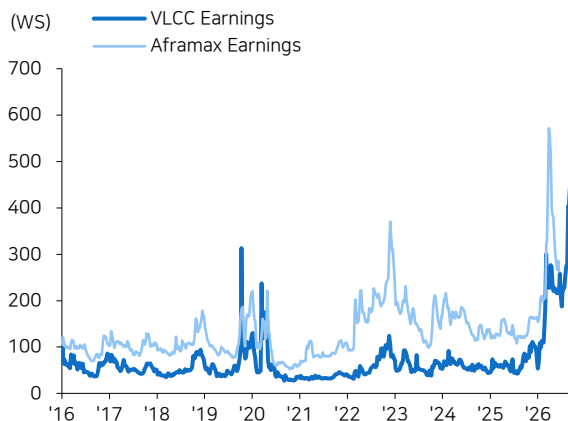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590.1 (+80.5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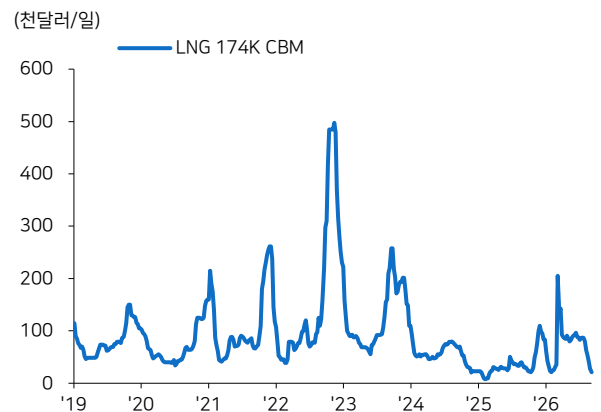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41.8WS (+40.2p WoW)



LNG Spot 운임

21.0천달러 (-7.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오션, 美 군함 수주 기대감...해군 수장 필리조전소 방문 (프레스나인)

<https://zrr.kr/NF05xp>

한화오션의 미국 군함 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형 카오 미국 해군장관 대행이 필리조전소를 방문해 생산 역량과 건조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보도됨. 한화는 필리조전소 인력 확대와 생산성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오스탈 USA 인수를 통해 미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 공급망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한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미국 시장과 함께 태국 해군 호위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우디·유럽 특수선 사업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군함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려짐.

HD 현대, 인도 타밀나두 상무부 장관 독대...'초대형 조선소' 밀그림 완성 눈앞 (더구루)

<https://zrr.kr/gRLc2R>

HD현대가 인도 타밀나두주 정부와 투투쿠디 초대형 조선소 건립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며, 부지 개발과 인프라, 인허가 및 투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보도됨. 투투쿠디 조선소는 약 830만㎡ 부지에 연간 250만GT 건조 능력을 갖춘 그린필드 조선소로 계획됐으며, 총 투자 규모는 약 40억달러, 직접 고용은 약 15,000명으로 추산됨. 타밀나두주 정부와 HD현대는 상세사업보고서(DPR) 작성에 착수하며 개발·자금 조달·건설·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전해짐.

中, 이집트 잠수함 4척 수주전 가세...한국·독일·프랑스와 경쟁 예고 (더구루)

<https://zrr.kr/5fUhlU>

이집트가 신형 잠수함 4척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기술이전·현지 건조 조건을 앞세워 참여하면서 한국·독일·프랑스와의 4파전 구도로 재편됐다고 보도됨. 한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KSS-II 잠수함과 기술이전, 현지 조립·MRO 패키지를 제안하며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전해짐. 이집트는 AIP 탑재 디젤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이전과 금융 지원, 무기 패키지 조건이 최종 사업자 선정의 핵심 변수로 알려짐.

AP Moller-Maersk set to order its largest-ever vessels as part of \$9bn spree (TradeWinds)

<https://zrr.kr/m92snb>

Maersk가 최대 42척, 약 89억달러 규모의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며 초대형 신조선 발주 사이클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2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입찰에는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소 중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중국 조선소들과 수주 경쟁을 벌인다고 알려짐. Maersk는 2029~2030년 인도 슬롯 확보를 위해 19,000TEU급 24척과 18,600TEU급 6척 발주도 추진하며, 현금 185억달러를 바탕으로 선대 현대화를 가속한다고 보도됨.

해수부·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착공...“2030년 북극해 취항” (조선비즈)

<https://zrr.kr/wkRqxl>

해양수산부가 11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1만6,560톤급 차세대 쇄빙연구선 착공식을 개최하며, 2029년 완공과 2030년 북극 연구 투입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보도됨.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기존 아라온호 대비 총톤수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쇄빙 능력을 50% 높여, 80도 이상 고위도 북극해를 포함한 북극 전역 항해가 가능한 연구 플랫폼으로 건조된다고 전해짐. 신규 쇄빙연구선이 북극을, 아라온호가 남극을 전담하면 극지 연구항해 일수가 연간 약 85일에서 270일로 늘어나며,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연구 데이터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알려짐.

로열티만 年 수천억...‘LNG 선 화물창’ 국산화 재도전 (한국경제)

<https://zrr.kr/xbGkqb>

국내 조선 3사가 LNG 화물창 국산화에 재도전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연내 174,000㎥급 LNG 운반선을 발주해 2세대 한국형 화물창 실증에 나설 전망이라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은 콜드스팟 문제를 개선한 2세대 화물창 기술을 개발했으며, 대형 LNG선 실증에 성공할 경우 GTT에 지급하던 척당 약 200억원 규모의 기술료 절감이 기대된다고 전해짐. 가스공사 발주를 계기로 대형 LNG선 실적을 확보하면 급증하는 LNG 운반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